

# 자동차 부품 3사 국책과제 수행

## 유리섬유 사출금형에 NOx 저감 필터 ... 국내기술 향상에 기여

울산시가 자동차 부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울산시는 6월24일 자동차 부품기업인 동남정밀과 한국몰드, 세종공업 3사가 지식경제부의 <2009년 대형 국책과제> 수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3사는 2009년부터 3-5년간 총 7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(재)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혁신센터, 포항산업과학연구원(RIST) 울산산업기술연구소 등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.

한국몰드는 2012년 6월까지 <유리섬유 고탍유 자동차 부품용 고경도, 저마찰 사출금형>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최근 자동차 내·외장 부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유리섬유 사용이 늘어나면서 금형의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세종공업도 같은 기간 <유로6 대응 그린 디젤자동차용 NOx센터 시스템 개발>을 추진해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인 NOx(질소산화물)을 저감하는 전용 필터를 개발할 방침이다.

동남정밀은 2009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<차세대 자동변속기 핵심부품 생산기반기술> 개발과제를 수행해 자동차 연비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동변속기 부품의 제조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6/24>